



‘헌트’ 특별출연 황정민 강렬한 존재감 업지 척

5분 위해 한 달간 북한사투리 연습
주연 ‘수리남’ ‘교섭’ 통해 관객 만나

배우 황정민이 영화 ‘헌트’에 특별출연하며 주목받고 있다.

영화가 10일 개봉 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빛을 본 결과이기도 하지만, 극중 5분 안팎의 짧은 분량만으로 주연 못지않은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해 눈길을 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9월 첫 OTT 주연작(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과 영화로 연이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황정민은 ‘헌트’에서 귀순한 북한 파일럿 ‘리 중좌’ 역을 맡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1983년 2월 25일 미그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 공군 이웅평 대위를 모티브 삼은 캐릭터다. 극중 주인공인 안기부 요원 김정도를 연기한 정우성과 마주 앉아 기싸움을 벌이는 그는 숨 막히는 취조실 분위기에도 여유롭고 능청스러운 태도와 불처럼 뜨거운 분노를 오가며 해당 장면을 완전히 장악한다.

이성민, 유재명, 박성웅,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등 화려한 배우들이 특별출연한 영화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줄을 잇는다. SNS 등에도 영화 속 황정민의 존재감에 대해 극찬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쏟아졌다.

또 다른 주연작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신세계’에서 호흡을 맞춘 이정재 감독과 ‘아수라’에서 함께 연기한 주연 정우성과의 의리로 출연을 결정한 그는 단 2회차 촬영을 위해 무려 한 달 동안 북한사투리를 연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은 ‘황정민 선배가 북한 사투리를 지도하는 선생님께 사투리를 배우고 개인적으로 또 다른 (전문가) 선생님까지 만나는 열의와 열정을 투자했다. 현장에서 (황정민의 연기를 보고) 스태프들이 거의 졸도했을 정도’라며 고마워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주연한 OTT 시리즈 ‘수리남’(감독 윤종빈)으로 다시 한번 놀라운 연기를 보여줄 전망이다. 9월 9일 넷플릭스에 공개되는 시리즈에서 걸으로는 인자한 목사인 척하는 무소불위의 남미 마약대부를 연기했다. 하정우와 박해수가 각각 그로 인해 누명을 쓴 민간인과 그를 잡으려는 국정원 요원을 맡는다.

주연 영화 ‘교섭’(감독 임순례)도 9월 이후로 개봉을 논의 중이다.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한국인 인질들을 구하고자 하는 외교관 역을 맡아 국정원 요원을 연기하는 현빈과 호흡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요즘 대세된 tvN 예능 ‘뽕뽕 지구오락실’



tvN 예능프로그램 ‘뽕뽕 지구오락실’의 주역인 방송인 이은지, 래퍼 이영지, 오마이걸 미미, 아이브 안유진(왼쪽부터)이 MZ세대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제공 | tvN

MZ세대 공감? MZ세대로 공략!

“MZ세대의 힘을 보여줄게요!”

평균연령 24세의 예능 신인들이 방송가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방송인 이은지(30), 걸그룹 오마이걸의 미미(27), 래퍼 이영지(20), 걸그룹 아이브의 안유진(19)이 주인공인 tvN 예능프로그램 ‘뽕뽕 지구오락실’(지구오락실)이다. 예능 출연 경력이 많지 않은 이들은 독특한 재치와 패기를 앞세워 젊은 세대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면서 ‘MZ세대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유튜브·SNS에선 이미 ‘스타’

프로그램은 태국으로 떠난 네 사람이 연출자 나영석 PD 등 제작진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며 다양한 게임과 미션을 해결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김찾기 미션’에서 번역기, 지도 등 각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반짝이는 기지를 발휘해 제작진을 당황시키기 일쑤다. 또 제작진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쉬는 시간마다 아이돌 노래에 맞춰 ‘랜덤플레이댄스’를 펼치거나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를 찍기도 한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와 똑 같다”며 MZ세대의 공감을 받으면서 화

평균 24세 예능초보 4인 팀워크
특독 튀는 엉뚱함과 패기 앞세워
10~30대 젊은 시청자 사로잡아

제물이의 중심에 섰다.

프로그램의 ‘화력’은 시청률과 화제성 지표로도 확인된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스코리아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10대 남성, 10~30대 여성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방영 3회 만인 지난달 8일부터 6주째 전 채널 2049 타깃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다. 화제성조사회사 쿠틀이터코퍼레이션의 ‘TV&OTT 통합화제성’ 비드라마 부문 2위, ‘TV화제성’ 비드라마 출연자 1위(안유진) 등에도 이름을 올렸다.

제작진은 평균 연령을 20대로 확 낮춘 출연자들이 이끈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출자 박현용 PD는 18일 “이들은 아직 시청자들에게는 아직 낯설지만 각자 SNS 채널을 운영하며 이미 온라인에서 유튜브·SNS 스타로 꼽힌 지 오래다. 이들의 온라인 화제성이 프로그램에 ‘역 반영’됐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일상이 담기면서 ‘랜덤플레이댄스’ 등

최신 트렌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찢팔매는 나PD ‘신선’

당돌한 MZ세대들의 ‘반격’에 21년차 베테랑 나영석 PD가 당황하는 등 ‘찢팔매’는 모습은 온라인에서 ‘밈’(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으로까지 활용될 정도로 인기다. 나 PD가 퀴즈를 내며 ‘알잘딱깔센’(알아서 잘하고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일처리를 한다는 뜻)이란 유행어를 틀리게 말하자 막내 안유진이 “땡!”을 외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일부 중장년층 시청자 사이에서는 ‘기성세대’로 대표되는 제작진에 공감하며 프로그램에 MZ세대를 이해하는 창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생겼다.

이들의 수평적인 팀워크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신서유기’ 등 다른 예능프로그램과 달리 출연자간에 서열이 따로 나뉘지 않아 색다른 재미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박 PD도 “네 사람이 짧은 시간에 상호보완적인 팀워크를 다지는 과정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

스포츠동아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13

연예뉴스 HOT 3



‘본 투 러브 유’ 뮤직비디오 속 문지효·강승윤

강승윤·문지효 열애설에 YG엔터 “확인 불가”

그룹 워너 엠버 강승윤(28)과 배우 문지효(22)가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18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승윤과 문지효로 추정되는 커플이 다정다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확산됐다. 그러자 두 사람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지효는 3월 발매된 강승윤의 솔로곡 ‘본 투 러브 유’(BORN TO LOVE YOU) 뮤직비디오에 여주인공으로 출연하면서 열애설에 무게가 실렸다.

알렉사, 10월 미국 8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



가수 알렉사가 10월 미국 8개 도시에서 단독 콘서트(사진)를 연다. 18일 소속사 지비레이블에 따르면 알렉사는 10월 18일 저지시티를 시작으로 산후안, 애틀란타, 시카고, 오클라호마,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팬들을 만난다. 알렉사는 5월 미국 NBC 경연 프로그램 ‘아메리칸 송 콘테스트’ 오클라호마주 대표로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면서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소속사는 “콘테스트 우승자다운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세트리스트를 구성할 것”이라며 “케이(K)팝 퍼포먼스의 정수를 담아 힘 있는 무대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정규 2집 예약 6일만에 150만장 돌파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사진)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선주문량 150만장을 돌파했다. 정규 1집 ‘디앨범’(THE ALBUM)이 예약 판매를 시작하고 6일 만에 선주문량이 80만장을 돌파한 것보다 약 1.8배 많은 수치다. 블랙핑크는 9월 16일 2집 발매에 앞서 19일 오후 1시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을 발표한다. 이후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에서 초대형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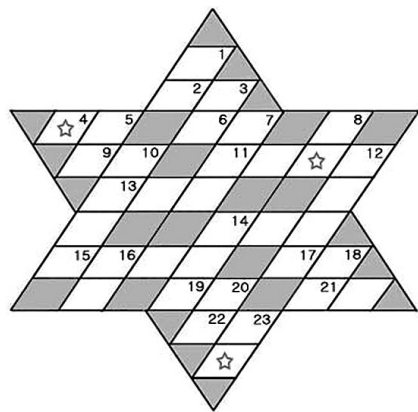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1			6		2		
			8			5			6
3				8		1			7
		5	2		3		8		
9			6		4				1
			3		9		6	5	
		2		5		3			4
5			9			7			
		9		7			1		

■ 스도쿠정답

9	8	7	1	5	8	2	6	3	
1	8	2	6	3	9	5	7		
6	2	5	7	9	8	1			
2	1	6	2	8	5	7			9
7	9	8	9	6		1	2	2	
2	9	6	2	1	7	6	8		
8	2	1	5	9	2	8	7	6	
5	7	2	6	8	1	9	2	8	
6	6	9	8	7	2	2	9	1	
2	1	6	9	2	7	6	8		
8	8	2	1	6	7	9			
7	9	6	8	5		1	2	2	
2	5	9	8	6	2	8	7	1	
1	2	6	7	9	9	2	8	6	
6	7	8	2	1	2	5	9		
9	2	7	1	2	8	9	6	8	
9	6	1	5	7	8	8	2		
8	8	2	6	9	2	2	9	1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 병아리보다 조금 큰 닭. 04. 강과 시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06. 어머니와 아들. 09. 흔들려 움직임. 11.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져 온갖 영광을 누림. 13.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 14. 동포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15. 갈수록 속도가 줄어드는 운동. 17.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음. 19. 운동경기의 팀을 대표하는 선수. 21. 봄·여름에 오는 비와 눈의 중간 상태의 백색 덩어리. 22. 도장 짙은 데 쓰는 붉은빛의 재료.

■ 세로 열쇠 01. 일이 성하게 잘되어 영화로움. 03. 아버지의 후취. 의붓어머니. 05. 꾸밈이나 거짓이 없어 자연 그대로 깨끗하고 순진함. 07.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08. 휴양이나 훈련을 위해 야외에 천막을 치고 생활함. 10. 조선 시대에, 의관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 12.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부드러운 기운이 넘쳐 흐름을 이르는 말. 14. 맑은 술을 따내지 않아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채의 막걸

리. 16. 빨리 알림. 18. 표준 정보보다 펍 지나치게. 대단히. 몹시. 20. 아내의 친정 아버지. 23.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열.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간을 이어놓으면 스타의 이름 됩니다.

